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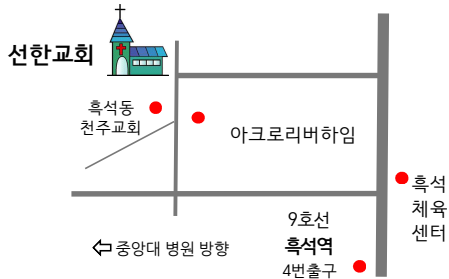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2부 주일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3:30	바울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루디아회	오후 1:00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	마리아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드보라회	오후 2:00
새벽예배	월-금요일 새벽 5:30	에스더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역자		국내선교사	
담임목사	임춘배	협력교회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해외협력선교사	
고상돈, 김대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로		관리장로	
편도선 (집사장)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천사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 2:1)



담임목사 임춘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 독 문	교독문 38번 (시편92편)			
찬 양 과 경 배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2장 1~3절		삼상 25:2~8	
설 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임춘배 목사)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이해경 권사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오세일 권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1장 26~31절		
설 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임춘배 목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9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요셉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새 생 명 축 제	* 일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축제예배(2부) * 초청할 분들을 기도하며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성 탄 절 칸 타 타	오늘부터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매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2층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현석 집사	
4. 노 방 전 도	26일(토)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 주관: 분당/안산/상도	
5. 제 직 회	11월 3일(주일)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통432)

본문 : 창세기 15장 1절

말씀 : 1990년 11월 16일 가을 맑은 날씨에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 이판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판 공항에 도착해 하강을 시작 하자 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수동 착륙도 불가능해 동체 착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내는 울음바다가 됐 조. 이때 신일덕 기장은 조종간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장과 함께 땀이 비 오듯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 성령의 불이 임하며 “두 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 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으며 기뻐한 기장은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하면서 “여러분, 나는 성령에 취했습니다”라 고 소리 지르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수동 장치를 돌려 보고 이번에도 안 되면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리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수동 기어 장 치를 다시 돌렸는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돌려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 한 손 으로도 쉽게 돌아가며 마치 기름을 친 것처럼 바퀴가 내려오더랍니다. 그때 신 기 장은 조종실에서 모든 사람이 들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시며 이 것을 믿는 성도와 함께하십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겨우 318명의 사병과 적은 수 의 동맹군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님이 방패가 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아브람에게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막강한 적군과 싸워 대승을 거뒀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환경을 보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잊어버 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부흥성회나 예배 가 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 가 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사라져 가는 아브람에게 다시 확실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하 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방패가 돼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벧후 2:1~3)

서 론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어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1.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

(1)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음(1절)

(2) 그들이 하는 일(1~3절): ①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②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함 ③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음 ④탐심으로 이득을 삼음

본 론

(3) 그들의 결과(3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2. 교훈

(1)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하는가?

(2) 거짓 선생들의 활동과 가르침은 무엇인가?

(3)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 론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김재준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오세일 권사	장혜선 권사
주 방 봉 사	요셉회	마리아회

매일 Q.T.		누구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날짜 : 10월 20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본문	갈라디아서 2:11~21		
말씀요약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외식한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묵상질문 1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함 2:11~14 안디옥에 이른 베드로를 바울이 강하게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이신칭의 은혜 2:15~21 이신칭의는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버려야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행위가 따라야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행위로는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을 기억하며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만 베푸시는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찬양과 기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지역에 완전히 상반되게 운영하는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A초등학교는 규율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규율을 어기면 벌점을 부과했고,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B초등학교는 대화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가졌고, 교사는 학생의 형편을 살피며 적절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B초등학교에도 규정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규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학년 초기, A초등학교에는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규율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고 급기야 전학을 가겠다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B초등학교는 학년 초기에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서서히 안정감을 찾더니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이 점점 늘었습니다. 흔히 강력한 규율이 완전한 변화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반한 가르침이 아닌 규율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만 강조한다면, 당장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패감과 공허함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와 사랑의 관계 중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갈라디아서 2:11~21
묵상포인트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행 15장)에서 결정했듯이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과 심적 평안을 얻으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관찰과묵상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게바)와 바나바 등은 어떻게 했나요?(11~13절)
적용하기	내게 두려움을 주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현혹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되겠다고 자기 의를 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날짜 : 10월 25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본문	갈라디아서 4:1~11		
말씀요약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듯이, 우리도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려 한다면 이는 어리석습니다.		
묵상질문 1	종과 아들 4:1~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담대히 행할 일 혹은 피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종으로 돌아가려는 이리석음 4:8~11 갈라디아 성도들이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며 지킨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매이면 안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4장 4, 6절 하나님이 세상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특별한 사명을 맡겨 보내셨다는 뜻이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은 자녀 삼은 백성과 함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기쁨 때나 슬플때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우상을 좇다가 믿음이 희미해지고, 율법에 매여 자유를 상실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 피로 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일상에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날짜 : 10월 22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본문	갈라디아서 3:1~9		
말씀요약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듯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묵상질문 1	책망받는 성도들 3:1~5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3:6~9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나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3장 3절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합니다.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일을 강조하고, ‘육체로’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도 ‘성령으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된 신앙을 저버리고, 육체(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 은혜에 기반해 살아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함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약속	날짜 : 10월 23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본문	갈라디아서 3:10~18		
말씀요약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묵상질문 1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 3:10~14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묵상질문 2	언약을 성취하심 3:15~18 바울이 사람의 언약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실망하지 않을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은 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람은 천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함을 동반한 사랑이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율법의 저주 아래 죽었던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가며, 구원의 약속 위에 제 신앙을 세우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바뀌어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살게 하소서.		

매일 Q.T.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	날짜 : 10월 24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본문	갈라디아서 3:19~29		
말씀요약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합하고자 침례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묵상질문 1	율법의 기능 3:19~25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침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3:26~29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절묵상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거듭날 때,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덮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의 종류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율법은 죄를 낱알이 드러내지만, 제 영혼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에도,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사람을 입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소서.		